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3.1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의회, 전문가 주도·독립적 호라이즌 유럽 추진(3.16)

- 13일 유럽의회는 집행위의 하향식 통제 강화 및 산업 정책 중심 운영 제안에 반대하며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보고서 초안을 발표
- (예산) 개별 공모 설계에서 집행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총 2,200억 유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별 별도 예산 설정을 제안, EU·회원국·민간 투자를 결합한 공동 재원 확대 필요성 강조
- (거버넌스) 유럽경쟁력기금과 호라이즌유럽 간 분리 제안,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(경쟁력/글로벌 사회문제)를 신설하여 공동연구 우선순위 설정과 공모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주도 거버넌스 강화 제시
- (ERC·EIC) EIC 프로그램 매니저의 독립적·고위급 지위 부여, ERC 과학 위원회의 연구유형·연구과제 선정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과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ERC·EIC 독립성 유지 강조
- (상향식 연구) 기초 및 상향식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지원제도 도입 제안 등

○ 호라이즌 유럽 2026~2027 개정: 대규모 '수평적 공모' 도입과 재원 논란(3.16)

- 호라이즌 유럽이 9월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, 2026~2027년 워크프로그램에 두 개의 대규모 '수평적(horizontal)' 공모가 추가될 예정
-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 때문에 논란 발생. 내부 문건에 따르면, 일부 재원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며, 이는 상향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잠식할 가능성이 제기됨
- 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과 2028년 시작 예정인 차기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가교(브리징) 역할의 수평적 공모도 준비 중

- (기타) ▲유럽의회 FP10 초안 연구계 반응 ... “좋은 출발이지만 일부 우려 존재”(3.16) ▲EU, 연구자 이동성·경력 안정성 강화를 위한 ‘표준 계약’ 도입 검토(3.12) ▲EU, 공동 과학외교 대응체계 구축 추진(3.12) ▲최근 연구, 공공 R&D 지출이 민간 지출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와(3.12)